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  화룡담 깊은 못이 너럭바위 아래 있어  뿜으며 들썩이며 변화가 무궁하다   |  |  |  |  | | --- | --- | --- | --- | | **사자봉** 높은 돌이 **용소**(龍沼)를 굽어보되  바위 중턱 파인 곳에 **돌 하나** 끼어 있다  **중**의 말이 황당하여 대강 걸러 들으니  저 바위의 사자가 화룡더러 말하기를  이내 몸 육중하여 무너져 내려가면  너의 깊은 **못**이 터전도 없을 테니  네가 재주 많다 하니 내 발 조금 고여 다오  화룡이 옳게 여겨 **건너편 산**에 올라  저 돌을 빼다가 이 바위 괴었다 하네  들으니 그럴듯해 건넛산 바라보니  과연 산 중턱에 돌 하나 빠진 틈이  **이 돌** 갖다 끼울 만큼 크기가 비슷하다 |  |  |  | |  |  | | **[A]** | | |  |  | |  |  |   **(중략)**  한참을 구경하고 도로 내려 금강문에  남여 타고 절에 와서 **점심을 먹은 후**에  만물초 가는 길이 온정을 지난다기에  **극락고개** 넘어서서 **오 리 남짓** 가니  주막집 바로 곁에 **우물집** 지었기에  **문 열고 구경**하니 상하탕(上下湯)이 늘어 놓여  넓적한 돌 네모지게 두 군데 똑같이 짜고  물빛은 흐릿하고 미지근하다 하네  보슬비 계속 내려 주점에서 머물고  **이십일 일 조반** 후에 날 흐리고 안개 덮여  만물초 구경하려 준비하고 내려가니  지로승(指路僧)과 **주막 주인** 붙들고 **만류**하되  ⓐ만물초 가는 길이 칠십 리 왕복이요  청명한 일기에도 구름 끼면 못 보는데  하물며 비 오는 날 지척을 분간하랴  미끄러운 돌사다리 천신만고 들어가서  산 밑만 겨우 보면 분하지 않으리오  들으니 그럴듯하고 일행들도 옳다 하여  봉래의 후약을 만물초에 남겨 두고  행장을 다시 차려 총석으로 향할 제  금강 내외산을 이곳에서 작별하니  만 이천 봉 빛이 눈앞에 역력하다  -홍정유, ｢동유가｣-  (나)  **7월 3일(금)**  총석정은 다음날 와서 찾아가기로 하고 송전(松田)으로 오다. 송전처럼 좋은 데가 왜 아직 이름이 못 났을까. 왜 깨끗한 여관 하나, 세별장(貰別莊) 하나 없을까. 단 두 집의 여관, 모두 여인숙급인데 하나는 이름이 없고 하나는 ‘**동해여관**’이라 대서(大書)하였다. 이름 있는 집으로 정하다.  고저(庫低)가 곳간 바닥 그대론 듯이 송전은 솔밭 그대로다. 거리도 반은 솔밭 속에 묻히었다. 해풍에 자란 솔들이라 통만 굵고 가지는 적은데 모두 아래로 드리워서 파라솔이라도 아주 요즘 유행형들이다. 그 밑에 돗자리나 깔아 놓으면 소나무 하나 마다가 훌륭한 정자겠다.  **솔**만 보면 봄인 듯하다. 그렇게 푸르기만 하지 않고 윤**택하다**. 땅만 보면 가을인 듯하다. 그렇게 모새\*가 보드랍지만 않고 쨍쨍 소리가 날 듯 양명(陽明)하다.  거리에서 ⓑ바다로 나가는 길이 좋다. 넓고 양편에 소나무가 선 길은 송전 말고도 얼마든지 있을 게다. 그러나 이 길처럼 정하고 고운 길을 나는 일찍이 걸어 본 적이 없다. 혼례식장에서 이제 막 나오는 신랑 신부나 걸었으면 싶은 그런 길이다. 이 길이 끝나면 천공(天空), 해활(海闊), 거기엔 떡 뻗치고 선 것이 하나 있으니 초현실파의 그림처럼 의외의 것이되 배경에 조화되어 버린 철봉이 하나, 나는 뛰어가 매달리어 턱걸이를 겨우 네 번을 하다.  바다는 물결이 세다. 뽀―얀 수말(水沫)은 눈보라처럼 해안을 올려 쓴다. 해당화가 잊어버리지 못할 정도로 군데군데서 나부 낀다. 향기도 강하건만 파도 냄새에 묻혀 꺾어 들어야 코를 찌른다. 바다는 늘 보아도 젊어 있다.  밤에 창이 하 밝기에 **주인**에게 물으니 **보름달**이라 한다. 홑 고의적삼이 추우리만치 **산산**하나 다시 **여관을 나섰다**.  낮에도 텅― 비었던 길, 밤에도 사람의 그림자는 하나도 없다. 달빛만이 꽉― 차 있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어 디딜 때마다 달의 물결이 솨― 솨― 하고 흩어지는 것 같다. 길뿐이 아니라 솔밭 위에도, 철로 위에도, 으리으리한 바다 위에도, 달은 또한 큰 바다이다. 이 달의 바다 아래에선 물의 바다는 너무나 조그맣구나! 그리고 달의 바다는 너무나 성스럽구나!  새 한 마리 노래하지 않는 솔밭, 들창 하나 열리지 않은 빈 별장들, 누구를 위해 달은 이처럼 밝아 있는가? 사람이야 나와서 보건 말건, 정물(情物)이 아닌 파도만 치는 곳에, 달은 이렇듯 밝아 있구나. 생각하면 우리 사람이 이르지 못하는 곳에 달은 얼마나 많이, 얼마나 널리 비치고 있는 것일까? 끝없는 사막, 끝없는 해양, 그리고 무인고도(無人孤島)들, 높은 산봉우리들, 남북극지의 빙원들, 또 그리고 무수한 천공에 달린 별의 세계들, 참 달은 무섭도록 크고 무섭도록 무심하구나! 사람이, 미물처럼 조그마한 사람이 제가 공연히 그에게 정을 두도다.  -이태준, ｢해촌 일지｣-  \*모새: 가늘고 고운 모래. |